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부녀의 이야기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G. 베르디는 우리에게 오페라 작곡가로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다. 젊은 시절 병으로 어린 딸과 갓난아기인 아들, 아름다운 부인을 2년 동안 모두 잃은 비극을 겪은 그는 내면의 고통을 씬 없는 창작활동과 빼어난 예술작품을 남기는 것으로 극복했다.

이후 다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일생을 해로운 그였지만 자식을 남기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작곡가 베르디의 자손으로 기록된 인물은 없다. 베르디의 딸 비르지니아는 생후 17개월에 사망했는데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죽은 아들 이치리오보다 그의 상심이 더욱 컸으리라 짐작된다. 두 돌이 다 돼가던 첫 자식과는 잊지 못할 추억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인지 베르디는 유독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베르디의 작품은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존재감이 약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부각한 오페라가 많은 편인데 그보다 숫자는 적지만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로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 몇 편 있다.

잔 다르크의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 '조반나 다르코'에서 아버지와 딸의 반목 관계는 작품의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고 '라 트라비아타' 역시 친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주인공 비올레타가 연인의 아버지에게 부성애를 갈구하는 부분에서 아버지와 딸에 대한 베르디의 남다른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작품은 1853년에 발표된 오페라 '리골레토'다.

주인공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제목인 '리골레토'는 궁중 어릿광대와 그 딸에 관한 이야기로 리골레토는 당시 가장 천시받는 직업인 어릿광대일 뿐 아니라 등이 굽은 척추장애인이다. 이런 리골레토의 천사처럼 아름답고 순결한 외동딸 질다는 집에만 갇혀 사는 처지다. 자신을 끔찍이 사랑해주지만,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아버지가 그녀의 바깥출입을 엄격히 금했기 때문인데 거기에는 질다는 모르는 사정이 숨어있다.

리골레토가 모시는 주군 만토바 공작은 천하에 다시없을 바람둥이 호색한으로 멋진 외모와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 세상 모든 여자를 가리지 않고 탐해왔다. 신하의 부인까지도 거침없이 농락하는 그는 비난을 받는다 해도 죄의식이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도덕성이 없는 인물이다. 이런 공작의 캐릭터는 아리아 '이 여자나 저 여자나'에 잘 드러나 있다. 흔히 만토바 공작의 노래로는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여자의 마음'만을 기억하기 쉽지만, 오페라의 막이 오르자마자 기세 좋게 시작되는 이 곡 역시 그의 기질을 잘 드러낸 명곡이다.

자신은 비록 멸시받는 어릿광대일지언정 소중한 딸만큼은 고이고이 길러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리골레토의 마음이었을 테지만 딸은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가난한 학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공작과 기어코 사랑에 빠지고 만다.

공작의 가신들에게 납치돼 궁으로 끌려온 질다는 결국 공작에게 능욕을 당하고 잠옷 차림으로 그의 방을 도망쳐 나온다. 그 순간 어릿광대 복장을 한 채 딸을 찾아 궁 안을 헤매던 리골레토와 맞닥뜨리게 되고 부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의 서로를 마주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더라도 가족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만난 두 사람의 애끓는 이중창은 15분에 가깝도록 펼쳐지고 이 부분이 바로 2막의 하이라이트이자 작품의 숨겨진 백미다.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정작 본질은 감춰왔던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가족을 진실로 위하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아버지가 그러하듯, 순진한 딸에게 몃쓸 짓을 한 공작에게 리골레토는 복수를 시도한다. 반면 질다는 자신을 가차 없이 버리고 새로운 여자에게 눈을 돌린 공작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의지할 데라고는 오직 단둘뿐인 아버지와 딸의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공작 대신 죽음을 맞는 질다를 부둥켜안고 리골레토는 죽으면 안 된다며, 네가 떠나면 나는 혼자라고 흐느낀다. 막이 내리면서 들리는 한 맺힌 리골레토의 절규는 한꺼번에 떠나버린 가족들을 향한 베르디 자신의 외침 같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사무친다.

